

2015년도 PSAT 난이도, 언어·자료 ↑ ...상황 ↓

- 응시자 62% “체감 난이도 높아졌다”
- 응시자 68.7% “자료해석 가장 어려워”

2015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PSAT)이 지난 7일 비교적 포근한 날씨 가운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이번 1차 시험에는 전체 380명 모집에 13,591명이 접수하여 평균 3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올해부터 3차 면접탈락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2차 시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선발인원이 '襁배수 이내'에서 8배수 수준으로 조정돼 첫 관문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년 1차 PSAT 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평이다.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영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조금 상승한 반면 상황판단영역은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1. 언어논리영역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40문제 전체를 묶어서 보면 체감난이도는 조금 상승한 것 같습니다”이처럼 언어논리에서 체감난이도 높아진 것으로 느껴진 것은 우선 세포액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지문이 예년보다 많이 출제된 것을 꼽았다. 또한 예년보다 ‘알 수 없는 것 또는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반면 부합 문제는 적게 출제된 이유를 들었다. 부합 문제보다 ‘알 수 없는 것 또는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나 추론 문제의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치부합형 문제 구성이 달라진 것도 체감난이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출제되었던 짝짓기 문제(A책형 4번, 24번)와 논지 문제 등 비교적 쉬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지문 길이가 전반적으로 길었다는 것이다.

이번 언어영역은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과학지문이나 긴 지문에 당황하여 평소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합격의법학원 박은경 강사는 “올해 언어논리는 2013년, 2014년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며 “시험장 체감난이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고 평했다. 지문이 길어지고, 주장형 지문보다 정보가 많은 지문이 많이 출제된 것이 체감난이도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베리타스 이정 강사는 “언어와 논리를 구분해 선택적으로 언어논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합격의법학원 김우진 박사는 “(언어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리 영역의 증가에 있다”며 “논리학 관련 내용과 연역 추리 문항의 증가에 의해 체감난이도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률저널이 실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설문조사 참여자 1,610명(11일 기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을 묻는 질문에 언어논리라고 답한 비율이 23.5%로 자료해석 다음으로 높았으며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17%)보다 다소 증가했다.

2. 자료해석영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어려운 과목에 꼽혔다. 그동안 PSAT 과목에서 상황판단영역이 ‘마의 과목’으로 군림했지만 최근 자료해석이 당락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응시자들은 한결같이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문제가 까다로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인 책형’기준으로 21 40번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아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새로운 출제 유형도 체감난이도를 높이게 했다.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문제, 택시비 변화를 다소 복잡하게 제시한 문제, 명시적으로 확률을 소재로 출제한 문제 등은 전형적인 자료해석 문제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 이는 낯선 표 형태에 대한 수험생들의 빠른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요구되는 계산량이 많아진 점도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체감난이도

상승을 가져왔다. 청주공항·대구공항을 알아내는 것, 지지정당과 유권자 수를 구하는 것, 여행 경비를 환전하고 다시 나누는 작업 등이 다소 까다로운 문제로 꼽혔다.

금년 PSAT는 한동안 쉽게 출제되었던 자료해석영역에 다시 변별력을 주는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합격의법학원 김용훈 강사는 “올해 자료해석의 경우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벤 다이어그램이나 관계도 유형 등 예전 기출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유형이 일부 출제돼 체감난이도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리타스 PSAT 연구소서주현 연구원은 “계산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더욱 세밀해진 결과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셈도 기존보다 더욱 심화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며 “풀이방법에 따라 수험생 간의 격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저널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자료해석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 참여자 1,610명(11일 기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을 묻는 질문에 자료해석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8.7%로 ‘열의 일곱’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52.1%)에 비해서 약 1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3. 상황판단영역

그동안 ‘불과목’으로 통했던 상황판단영역이 올해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는 거의 모든 직렬에서 상황판단영역의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상황판단의 문제는 상당히 평이하고, 수험생들이 쉽게 걸려들지 않을 만한 함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출과 모강 등에 익숙해진 수험생들로서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라는 평이다. 특히 퀴즈문제의 경우 감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보다는 직접 계산하고 분석하는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가 강세를 이뤘다는 분석이다.

즉 ‘히말라야 문제’나 ‘우물 문제’와 같은 바로 생각해내기 힘든 콘셉트의 문제보다는 ‘우주센터 문제(인책형 기준 15번)’, ‘승경도 문제(17번)’와 같이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위주가 되었다.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법률문제와 퀴즈나 퍼즐 문제의 감소로 전체적인 체감난이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합격의법학원 김재형 강사는 “올해 상황판단은 최근 3년간의 문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평이한 문제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언어형 문제유형의 증가와 규칙형 문제유형의 감소가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때문에 전체 문제의 난이도도 낮아졌지만 체감난이도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리타스 PSAT 연구소 지평 연구원도 “이번 상황판단은 상당히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었다”면서 “예년에 비해 창의적인 접근을 요하는 문제의 개수가 줄어 난이도 또한 높지 않았다”고 평했다.

실제 응시자들의 생각도 그대로 드러났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묻은 질문에 응답자의 7.9%만이 ‘상황판단’을 꼽았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30.9%)에 비해 무려 23% 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금년 1차 PSAT는 언어논리영역과 자료해석영역에서 점수 하락요인이 생긴 반면 상황판단영역의 상승요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평이다. 따라서 단순히 난이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선발규모가 큰 일반행정이나 재경의 경우는 지난해와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체감난이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 1,619명 가운데 체감난이도가 ‘높았다’고 답한 응시자는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73.4%)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반면 ‘비슷하다’고 답한 응시자는 33.3%로 지난해(22.6%)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낮았다’고 답한 응시자는 4.0%에서 4.8%로 차이가 없었다.

(법률저널 전제인용)